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경제·인구 증가 '일석이조'

전남도 대상자 선정 56개팀 중 47개팀 주조지 옮기고 창업 준비 전국 286개팀 몰려...연말 25개팀 최종 선정 7000만원까지 지원

'고흥지역 폐자원을 활용한 ESG 운동을 신고 강진 쌀로 만든 '라이스 캔켄주'와 곡성 토란을 이용한 초콜릿을 맛보는가 하면, 영암 F1 국제자동차경주장 서킷을 활용한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보러 가자.'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전남에 정착한 젊은 청년들이 진행중인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사업'이다.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에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 대상자로 선정된 56개팀 가운데 47개 팀이 전남으로 주조지를 옮긴 뒤 독특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들 대부분이 39세 이하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젊은층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남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전남도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남을 제외한 타 시도나 전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역 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군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3차례 심사를 거쳐 최대 7000만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을 하려고 해도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 임대료부터 사업장 인테리어비, 재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 때문에 지난해 첫 신청 당시 286개 팀이 몰릴 정도로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남도는 1차 심사로 선정된 100개팀의 2개월간의 지역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가능성을 2차 심사에 56개팀(타 시도 30개팀, 도내 청년 26개팀)으로 압축한 상태다. 이들에게 인테리

어비, 사무실 임차비 등 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들 청년들이 제시한 사업 아이템 대부분이 고유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것들이다. 향후 사업화가 이뤄지면 색다른 지역 관광 상품이나 관광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담양에서는 대나무 풍미를 곁들인 크로칸슈와 디저트를 개발해 판매하겠다는 청년이 사업화를 진행중이고 담양의 노후공간을 리모델링해 업무와 휴식이 가능한 공유사무실을 조성하겠다는 청년도 창업을 서두르고 있다.

토란을 이용해 토란양갱, 토란술 초콜릿을 만들겠다는 경기도에서 전입 온 청년, 구례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심리치유 힐링센터를 운영하겠다는 포항에서 터전을 옮긴 청년, 구례 산수유, 송, 꽃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과 음료로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레스토랑을 운영해보겠다는 대전에서 전입 온 청년들도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고흥 지역의 미역폐기물로 가축 사료나 장기침상 환자를 위한 압박케어 물티슈를 개발하거나 폐

자원을 활용해 원료부터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을 100% 친환경소재를 적용한 운동화를 개발하겠다는 사업도 사업 가능성을 인정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창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안군 폐그물을 이용한 수세미 및 업사이클 제품 판매, 영암 F1 서킷을 활용한 트라이애슬론-듀애슬론-싸이클 대회 개최, 진돗개나 동백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 개발, 다산 정약용의 제다법(제업, 공동생산, 제다법, 표준화)을 활용한 차(茶)체험-관광 상품 등도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들 사업들의 3차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성공 가능성이 높은 25개팀을 선정, 최대 5000만원의 사업고도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및 성과 공유회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청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전남의 숨은 자원과 매력을 발견하고 지역에서 창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청소년 사회 탐구 캠프 30개팀 선발 500만원 지원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전남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도는 '2023년 청소년 사회 탐구 캠프' 참여자를 오는 9월 4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사회탐구 캠프는 전남 고교생에게 지역 사회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공계열에 비해 지원이 미비했던 인문·사회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전남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구·노인복지·장애인·경제·안전과 자유주제 등 6가지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발전 정책 제안을 신청받는다.

학생과 지도교사 1인 포함 최대 6인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하면 30개 팀을 선발, 자료조사 및 체험 활동비, 교재비, 강사비 등 지출을 위한 연구수행 활동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1~24일 3박 4일간 전남도 전역서 을지연습

'2023년 을지연습'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남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전남도는 정부 연습계획에 따라 을지연습으로 인한 전지 종합상황실을 도와 시·군에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사·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이번에는 국가안보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연습 전 실시하는 위기관리연습(CMX)과 전쟁 발발 이후 실시하는 국가총력전 연습으로 구분해 치러진다. 또 도, 시·군, 읍·면·동, 군·경, 공공기관·단체, 업체 등 128개 기관 1만 5600여명이 참여해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으로 실시된다.

전남도는 을지연습을 ▲도상연습 ▲전시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눠 실시할 방침이다.

도상연습의 경우 전쟁 실상에 부합한 복합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사건계획을 처리함으로써 유사시 상황 조치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현안과제 토의에선 북 핵 위협 시 대응 방안, 전시예산 편성 및 효율적 운용방안 등 총무계획 개선과제를 선정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 대응훈련,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훈련 등 실제 훈련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6년 만에 전 국민 민방공 대피훈련 등 안보 위협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습으로 도, 시·군 전 직원은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대상 수상 정원으로 꼽힌 장성군 진원면 안병옥씨 주택의 정원 전경.



근린정원 부문 최우수상 수상 정원으로 꼽힌 여수 소라면 카페 '메이비(may.b)' 정원전경.

집과 카페서 즐기는 초원...정원 이렇게 꾸며 보세요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대상에 장성 안병옥씨 '초원' 59개 정원 출품 9곳 수상

전남도의 '2023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장성 진원면 안병옥씨 주택의 정원 '초원'이 대상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정원을 관광자원으로 키우고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콘테스트를 마련했다.

개인주택정원 부문으로 참여한 응모한 59개 정원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9곳의 정원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을 받았다. 정원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사는 정원의 디자인과 심미성, 식재 소재의 다양성, 완성도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개인주택 정원 부문으로 참여한 '초원'은 소나무 등 상록수를 활용해 잔디와 어울리면서 이듬 그대로 초원의 푸름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개인·근린정원 두 분야 통틀어 대상 정원으로 뽑혔다.

특히 유선형의 관람동선 기법을 도입하고 키 큰 교목과 키 작은 초화류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정원 속 편안함을 느끼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원주는 퇴직 후 20여 년간 정원을 조성했다.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조성된 근린정

원 부문 최우수상은 여수 소라면 카페 '메이비(may.b)' 정원456, 우수상은 담양 대전면 카페 '이레동산' 0.1, 함평 학교면 카페 '함평천지 몽베르' 2.3가 선정됐다.

개인주택 내 정원 부문의 우수상은 순천 안평동 구상화씨 정원, 담양 장평면 김미란씨 정원, 강진 도암면 김현지씨 정원이 선정됐다.

선정된 정원에는 정원주의 자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전남도 예쁜정원' 현판이 전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2020년부터 열고 있는 예쁜정원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 정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유기농 명인 신청하세요 전남도 6개 분야 후보자 모집

'2023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을 찾아라.

전남도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선발을 위한 후보자를 모집한다. 각 시·군에서 추천한 유기농 농업인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정한다.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은 배·밭작물·과수·채소·축산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3300㎡ 이상 유기인증을 받고, 유기농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저비용·독특한 유기농업 실천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에게 부여한다.

선발된 명인은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사업 등 전남도가 지원하는 다양한 명인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명인 상표인 '명인드림'을 자체 농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전남도가 장애인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에 나선다.

교육과정은 40시간의 이론 및 실기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50시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이 있으면 교육 내용 중 '활동지원의 실제' 과목 8시간을 감면받는다. 만 18세 이상으로 활동지원사 활동을 바라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